



광주시 남구 주월동 제석초교 정문 바로 옆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축 아파트 출입구(오른쪽 차량 주차지역)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완공 이후 학생들의 등하곳길 교통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아파트 출입구

# 차량 복직 위험한 등하곳길

## 제석초·학부모 “위치변경 하라”

광주시 남구가 출입구를 초등학교 정문과 나란히 붙여 설계·시공한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남구 주월동 제석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모 아파트의 출입구(도로 겸용)가 제석초 정문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설치·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석초 학부모 등은 최근 3766명의 서명을 받아 남구청에 이 아파트의 출입구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은 공개민원 회의를 통해 중재

에 나섰지만 건설사는 이미 아파트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돼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6월 도 건설사에 남구 봉선로길 제석초교 옆 1만5953㎡ 면적에 2개동 115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허가해줬다. 이 아파트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건설사는 공사 초기 622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제석초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학교측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남구청이 허가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추진했고, 제석초와 학부모들은 최근 예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남구청의 사려깊지 못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석초 앞 인근은 이 아파트 시공이 아니라도 내리막과 오르막이 교차하는데 도로폭이 좁은 탓에 출근 및 등교시간이 겹칠 때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복색통을 이루는 곳이다. 더욱이 인근 주민과 주변 병원·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학교 인접 이면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혼잡한 구역이다. 여기에 남구청이 문제의 아파트 허

가를 내주면서 학교 담장과 10여m 떨어진 이면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이 도로를 아파트 통로 겸 출입구로 사용토록 해준에 따라 아파트 정문과 학교 정문이 15cm두께의 담장을 사이에 놓고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제석초 학부모회 김천수(56)운영위원장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차량 통행이 잦은 아파트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건축 허가를 내준 남구청의 행동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25일 아파트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자살 네팔 근로자 병원비 없어 편히 눈 못감아

### 외국인센터 등 모금운동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지 한 달 만에 자살을 시도(본보 4월 16일자 6면)해 사경을 헤매던 네팔 출신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치료 중 끝내 숨졌다. 하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해결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

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5일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네팔 국적 A(25)씨가 지난 22일 전남대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구 마복동 한 빌딩하우스농장에서 스스로 목을 뒀다가 농장주

에게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6일 한국에 도착한 그는 자살 직전 고향 가족과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힘든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고자 인도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장례는 아직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치료

비 1200여만원 등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외국인센터의 도움으로 보험을 통해 500여만원의 치료비는 해결됐고, 네팔영사관 측에서도 장례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 재일교포가 1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고, 부산외국인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문의 010-3644-6748. 후원계좌 농협 352-0038-1728-53 바를 다이마리. /김경인기자 kki@

## 순천여고 과학관 폭우 날벼락

# 천장 붕괴 학생 5명 부상

지난 24일 내린 많은 비로 고교 천장이 붕괴, 수업중이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 25일 오후 12시30분께 순천여고 과학동 3층 천장 구조물이 3m 아래 계단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2학년 여학생 5명이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은 지 40년(1972년)이 된 노후 건물에 스며든 빗물로 접착

력이 약해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 등은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해 오후 수업을 듣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날 내린 많은 비가 천장에 고이면서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것 같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 뒤 보수 공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아버지 살해 가담 친구 항소심도 중형

### 광주고법, 13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친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5일 “아버지를 살해한 이모(24)씨에 대해서는 과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감안, 1심 선고 징역 20년에서 17년으로 감형하되 살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친구 송모(24)씨는 1심과 같은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마카오에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2000만원과 8000만

원을 탕진한 뒤 지난해 6월 보성에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송씨가 차량을 빌려 사건현장인 보성을 내려가는 도중 이씨가 CCTV에 안 찍히도록 뒷좌석에 태운 점, 이씨의 아버지에게 이씨의 친구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해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사고현장으로 유인한 점, 범행도구를 함께 구입한 점, 사건현장에 족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엑스포 도시 투자 큰 돈” 29억 가로채

### 여수경찰, 40대 구속

여수경찰은 25일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의사들을 상대로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최모(여·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경 전주에서 의사 안모(46)씨에게 “여수 돌

산에 있는 산을 구입해 형질 변경 후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2010년 4월까지 7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공범 최씨는 보험설계 일을 하면서 알게된 전주, 순천, 보령, 삼남지역 의사들을 김씨에게 소개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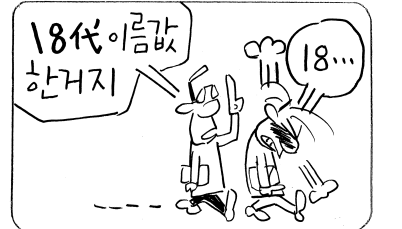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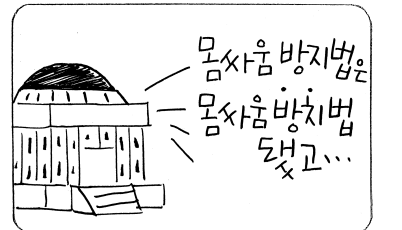
### 공무원노조 목포지부 간사

## 억대 조합비 횡령

전공공무원 노동조합 목포시지부 간사가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 목포시지부는 25일 “2011년도 회계감사 결과 지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 간사인 양모씨가

특별히 회생자 구제기금 명목으로 조성된 조합비 1억2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지부는 지난 23일 긴급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양씨를 횡령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했다. 김원택 지부장은 “횡령한 조합비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나원침 (8553) 김장두



## 양식장 50대 실종

바다에서 양식 작업을 하던 50대 어부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진도군 고군면 가계리 앞바다에서 양식 작업을 하던 어부 김모(55)씨가 실종됐다. 김씨는 이날 목선을 타고 양식장을 점검하던 중 목선과 연결된 줄이 풀려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함 등을 동원해 김씨가 실종된 해안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길은 안개가 끼었고 파도가 높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가짜 스님형세 여학생 성추행

○합평경찰은 25일 승적도 없이 스님형세를 하다가 관상을 봐주겠다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박모(57)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합평 터미널 등지에서 A중 여학생 B양(13)등 5명에게 승급이나 관상을 봐준다는 핏말로 컷볼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박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중.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오토바이)

www.yjcdive.co.kr

#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